

## 바티칸 大學의 特性

趙 成 子

(曉星女大 兒童學科)

### 머리말

교황청 소속의 바티칸대학을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다. 왜냐하면 바티칸 소속의 대학은 모두 교황청을 중심으로 로마 시내에 산재해 있으면서 각 단과 대학으로서 특수 학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티칸대학교 소속의 대학들은 알폰소대학(Accademica Alfonsiana), 성 안셀모대학(Pontificio Ateneo S. Anselmo), 안토니아대학(Pontificio Ateneo Antonianum), 성서대학(Pontificio Istituto Biblico), 그레고리안대학(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라테란대학(Pontificia Università Lateranense), 성 토마스대학(Pontificia Università S. Tommaso d'Aquino), 우르바노대학(Pontificia Università Urbaniana), 살레시아대학(Pontificia Università Salesiana) 등이다.

각 대학의 특수 학과로는 예를 들면, 우르바노대학의 교회법학과(canon), 라테란대학의 사목신학과(teologia pastorale), 안젤리움대학의 철학과(filosofia), 안토니아대학의 교육학과(pedagogia), 알폰소대학의 윤리신학과(teologia morale) 등이 있다.

바티칸대학의 특징은 완전히 대학원 중심제라는 것이다. 즉 전공을 강화시키는 과정으로 대

학원과 박사 과정을 특징지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바티칸대학 중에서 안토니아대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안토니아대학의 특성과 제도

안토니아대학은 1883년에 프란체스코회에 의해서 교황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학이다. 그래서 1983년에는 개교 100주년 행사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모시고 전교생이 큰 축제를 벌였다.

안토니아대학은 교황청과 프란체스코회의 원조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입학할 때와 매 학기마다 약간의 수수료 정도만을 부담하게 한다. 우리나라 화폐로 학부는 7~10만원, 대학원은 9~12만원, 학위 과정은 10만원 정도이며 대부분은 보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1985년 이후에는 모든 바티칸대학의 입학금이 30~50%까지 인상되었다고 한다.

안토니아대학은 크게 신학부, 교회법부, 철학부로 나누어지며 교육학과는 철학부에 소속되어 있다. 안토니아대학은 교육학과의 석사와 박사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부 과정의 1, 2학년에서는 주로 기초 과목의 철학과 신학을 일반 교양 과목으로 이수하게 되고 3, 4학년에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 언어 시험은 구두 시험 형식(oral test)으로 이 시험은 이해력을 알아두고 이해할 정도면 누구나 통과될 수 있을 정도이다. 별도로 입학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 시험만 합격하면 일단 입학은 되는 셈이다.

안토니아대학, 즉 바티칸대학은 어떤 학과를 선택하든 간에 우선 철학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그 이유는 철학을 모든 학문을 위한 첫 단계의 기초 과정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관념이나 인식 때문이다. 그들은 전공 과목으로 철학 전반을 배우고 일반 선택으로 신학 과목을 배운다. 카톨릭 대학이 추구하는 대학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제도로 되어 있다. 철학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카톨릭 철학 즉 토미즘을 계승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어를 중시한다.

바티칸대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시험 때에 현대어 중에서 자기에게 제일 용이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불어 중에서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철학 과정에서는 한 학기에 세미나 하나를 발표해야 되고 소논문을 2학년 때 제출해야 된다. 이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타이프로 50장 이상의 완전한 논문 형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된다. 이 논문이 통과될 경우 졸업이 가능하고 졸업 시험을 치르게 된다. 철학 과정은 학문을 하기 위한 기초 학문이므로 철저히 교육한다. 또한 외국어도 중요시한다. 1학년 때부터 라틴어는 의무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어를 선택어로 하지만 거의 의무이다. 현대에 와서 일반적으로 라틴어는 '죽은 언어'라고 말하지만, 많은 언어의 기원이 라틴어에서 유래해 왔고 아직도 바티칸은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 하나의 예로 안토니아대학의 모든 공식적인 서류는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다.

교육학 석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철학 과정을 마치고 입학하는 경우와 교육학을 마치고 입학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안토니아대학의 교육학과는 완전히 대학원 중심 제도이기 때문에 학부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는 철학의 많은 과

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므로 철학 학부를 거치지 않은 학생은 석사를 하는 동안 철학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대학원 제도와 시험 방법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언어 시험과 지도교수와 의 상담을 거쳐야 된다. 입학하기 전에 학과장과 상의를 해서 지도교수를 정한 다음 자기의 전공 방향에 대해서 지도교수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고 언어 시험에 합격이 되어야 한다. 언어 시험은 전공 과목에 대한 시험과 언어 구사력, 이해력을 위주로 한다.

대학원에서는 한 과목이 2학점으로 되어 있다. 4 학기를 하는 동안에 46 학점과 세미나 3개, 소논문 3개 그리고 졸업 논문을 100 페이지 이상 타이프로 쳐서 제출해야 된다. 졸업 논문을 제외한 모든 것을 대개 3학기까지 끝내고 4 학기 때는 졸업 논문을 준비한다. 세미나는 교수가 정해 주는 테마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발표를 해야 된다. 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미나는 교수와 학생간에 좌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소논문은 50 페이지 이상씩 항상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졸업 논문을 위한 연습 과정으로 쓰여진다. 석사 과정에서는 세미나 발표와 소논문을 타이프로 쳐서 제출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

안토니아대학은 바티칸대학에 소속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석사를 마치면 '준박사(bice-dottore)'라고 칭할 정도이다.

석사 과정 시험 방법은 세미나 3개와 소논문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두 시험으로 치른다. 시험 기간은 1 학기는 2월 1~15일까지, 2 학기는 6월 1~15일까지로 학교 규정에 정해져 있다. 교수와 상의를 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된 시험 일정표에 자기가 선택한 날짜를 기입하고 학생이 한 날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학생과 교수가 마주 앉아서 30분 동안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의한 내용과 부교재로 소개한 책 중에서 질문을 하고 학생의 학문에 대한 사교력, 논리성, 이해력 등으로 평가가 된다. 언어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언어를 선택할 수

가 있다. 시험을 치르는 기간에 시험에 응하지 않았거나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는 2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주일간의 시간을 준다.

접수는 최고점 30(summa cum laude), 28~26(magna cum laude), 26~24(cum laude)점까지 합격이고 20 점 이하의 재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그리고 세미나 접수, 소논문 접수, 졸업논문 접수가 모두 종합된다고 볼 수 있다. 졸업논문은 교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즉 2학년이 되면 벌써 서서히 논문 준비를 해야만 된다. 논문 지도교수 외에 두 교수가 부지도교수로 되어 있다. 논문을 대장씩 써서 모든 교수에게 제출하면 각 교수들이 의견을 첨부해서 다시 준다. 그러면 모든 교수의 의견을 재정리하여 다시 써서 제출을 해야 된다. 대개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 내지 5번은 되돌려 받는 고통을 겪은 다음 네 교수 모두가 동의와 허락을 하면 논문은 끝난다고 볼 수가 있다. 석사 졸업 때에 논문 접수는 30%가 적용이 되고, 종합 시험이 30%, 4년 동안의 평균 접수가 40% 적용된다. 종합 시험은 자기의 전공 과목에서 10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졸업 논문 중에서 질문을 많이 한다. 교수 방법은 강의식 수업과 세미나식 수업을 절충하면서 진행한다.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테마를 주면 학생들은 그 테마를 가지고 사고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이러한 교육 방법으로 인해서 구두 시험이 더욱 효과적일 수가 있다.

대개 석사 과정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3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정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학 학생 수의 50%는 학년을 연장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한다. 입학에 비해서 졸업은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많이 넘겨야 한다. 또한 학생의 대부분이 외국 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욱 많아진다.

## 박사 학위 과정

학위 과정은 더욱 어렵다. 사실은 석사 과정에서 많은 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연구 방법은 숙달이 되어 있지만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우선 언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다. 즉 이태리어를 제외하고 2개 국어 이상의 언어 시험 합격 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학생들은 대개 독어, 불어, 영어를 선택한다. 박사 과정에서는 바티칸의 대학이면 아무 곳에서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박사 과정은 아주 자유롭고 시간적 여유도 생긴다. 자유롭다는 것의 의미는 이수 과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논문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5년을 기준으로 끝낸다. 2년 동안 12 학점(6 과목)과 세미나 발표와 자기 논문에 대한 발표만 한다. 즉, 중간 논문 발표인 셈이다. 논문은 지도교수와 3명의 부지도교수 즉 6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게 된다. 석사 때처럼 각 1장씩 검열을 맡게 되고 언어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가 있다. 각 교수마다 요구 조건이 복잡하므로 특별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가 논문을 통과 시키면 논문이 완성되는 것이다. 논문이 통과되고 시험에 모두 통과되고 또한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학생은 2시간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소위 Role Play 인 것이다. 이때의 교수 방법이 학위 점수에 반영이 된다.

마지막 논문 발표일은 지도교수, 부지도교수, 서무과장(바티칸대학은 서무과장의 권위가 우세하다. 학위 소유자로서 교수와 똑같은 위치에서 학위 수여식에는 꼭 참여를 한다), 다른 초청 교수 등을 포함 7~8명의 교수와 학생, 초청객 등이 입석한 가운데 논문 발표회를 갖는다(발표자는 자기 친지, 교수 등을 모두 초청할 수 있음). 그리고 발표 10분 후에 논문 접수가 발표되고, 항상 교황의 이름으로 학위증을 수여한다. 한국에 비해 아주 간단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학위증 수여만 있고 학위를 마친 다음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지 않으면 이태리 정부나 교황청에서 박사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문을 다시 교황청에 승인을 받아서 지도교수와 부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출판해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식으로 책이 출판되려면 교황청의 교육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

쳐야 하며 출판이 되면 다시 교황의 이름으로 학위증과 비슷한 박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교수의 채용은 자율적인 동시에 교황청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프란체스코회 자체에서 특별히 자기 대학을 위해 인재를 계속 양성시킨다. 교수로 채용되기까지는 대개 2개 이상의 학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직접 인접 학문의 석사를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학위 과정을 계속한다. 그런 다음 조교 생활을 하면서 강의나 연구 경험을 혼련한 뒤에 교수 인사 위원회에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음) 논문 평가와 교수로서의 자질을 종합 평가한 후 통과하면 조교수부터 시작이 된다.

다음으로 대학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바티칸대학의 대총장은 항상 역대 교황이 된다. 지금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대총장이고(형식상) 각 단과 대학별로 총장이 있다. 이것은 아주 자율적이고 그 대학 자체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국적에 상관 없이 프란체스코회에 한해서 선출되고 학장이 선출되면 학과장을 학장이 임명할 수 있는데 개인의 의사를 참작해서 부작용 없이 대학 규칙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보직 교수에 대한 개념 자체도 우리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안토니아대학의 학교 제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안토니아대학이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전통적인 학문 탐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대학의 교육 이념

바티칸대학은 각 대학마다 후보 성인(그 대학에서 모시는 성인)이 있다. 예를 들면 그레고리안대학은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을 따라서 예수

회가 운영하는 대학이다. 우리나라도 서강대가 예수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토니아대학은 프란체스코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므로 프란체스코의 영성, 즉 단순성과 지혜, 가난을 중요시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I Documenti del concilio Vaticano II)의 교육 헌장(Dichiarazione Gravissimum Educationis sull'educazione cristiana)에서 제시하는 교육 이념을 따르고 있다. 교육 헌장 제1장에 명시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모든 인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Il diritto di ogni all'educazione)부터 시작이 된다.

1883년 대학이 창립된 이래 중세 때부터 이어온 전통 인문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학문의 방향을 결국 '인간의 존엄성(Dignità umana)'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은 공의회 교육 헌장에서 제시하는 현시대에 필요한 인간을 양육시키는 한편 종교 교육을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 문제, 존재 문제, 사고력, 자기 속고 내지 분석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평가도 이러한 근본 개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다. 안토니아대학의 교육 이념은 엄밀히 말하면 대학인들이 열망하는 지성과 진리와 의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학위가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나 이태리에서 교육계에 투신을 하고 계속 연구 생활을 한다.

바티칸대학 출신에게 실제적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학교 동기들이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의 교류에도 용이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